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한

## 변산반도 해안도로 여행

허준성 | 여행작가

달리는 내내 왼쪽으로는 내변산의 거친 산세가, 오른쪽으로는 짙은 바다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어깨를 나란히 함께 달음질을 쳐준다. 여기에 맑은 날씨까지 배경이 되어 준다면, 아마도 그동안 달려본 다른 드라이브 코스와 비교 안 될 정도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곳이 될 것이다.



## 변산 여행의 베이스캠프 변산해수욕장 & 하섬



1933년 개장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 중 하나다. 수심이 얇고 모래가 고와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 오토캠핑장과 빅슬라이드타워, 스카이워크브릿지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들어서면서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언제 찾아도 좋은 변산 여행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따라 조금만 가면 하섬이라는 작은 섬이 보인다. 하섬은 바다 위에 연꽃이 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변산반도와 연결되어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근처 하섬전망대에 올라 풍광을 즐겨도 좋고, 물이 빠지면 조개 잡기 체험도 가능하다. 맛조개와 동죽이 주로 잡힌다.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622-8

## 대자연의 경이로움 채석강

약 7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한 퇴적암이 마치 책을 켜켜이 쌓아 놓은 듯하게 끝도 없이 쌓여 있다. 퇴적층의 교과서라고도 불릴 정도로 지층의 형태가 다양하고, 파도에 침식되어 만들어진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장관을 이룬다. 채석강은 물때를 잘 맞추어 방문해야 한다.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면 직접 지층 위를 걸어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지층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풍광, 대자연의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다.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94-2



## 7천만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지질명소 적벽강



바닷길을 따라 여행하는데 갑자기 '강'이 나오지 싶다. 변산의 명소 적벽강도 '강'이 아니라 바다다. 부여의 또 다른 지질명소인 적벽강은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즐겨 찾은 적벽강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실 대단한 풍광을 지니지는 못해서 의외로 실망하는 눈길도 종종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적벽강의 진짜 모습은 날물에 물이 빠져나간 뒤이다.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7천만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주상절리와 페퍼라이트를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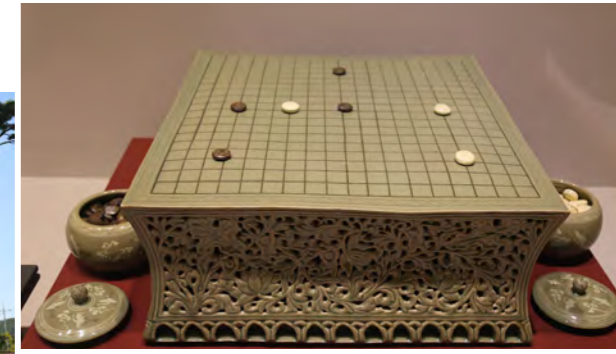
[주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2-9



## 짭조름한 바다의 향기를 담은 곰소염전

서해안 중심의 전국 염전 중에서도 태안반도 곰소염전의 소금은 손꼽히는 품질을 자랑한다. 상당수 염전이 바닥에 장판을 깔고 있는 데 비해, 곰소염전은 고가의 타일을 깔아서 생산한다. 장판이 굽히면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피하고자 40년 전부터 같은 방식을 고집한다고, 4월에서 10월 사이 소금 생산 시기에 들려볼 만하다. 염전 지근거리에는 곰소젓갈 도매시장이 함께 있다. 곰소염전 덕분에 자연스레 젓갈도 유명해졌다. 곰소에서 나오는 천연 소금에 줄포만에서 나는 풍부한 어패류가 더해져 곰소젓갈은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다양한 젓갈을 구매할 수 있음은 물론 밥때가 되었다면 젓갈정식으로 여행에 양념을 더해보자.

[주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염전길 18



## 상감청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안청자박물관

부안은 강진에 이어 국내 최대 청자 산지였다. 중국에서 먼저 시작된 청자는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받아들였다. 청자 중에서도 상감청자는 부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최고로 인정받았다. 주요 가마터였던 부안 유천리에 자리 잡은 청자박물관에는 다양한 청자 전시는 물론 손 물레를 이용하여 직접 청자를 만들 수 있는 체험도 있다. 🇰🇷

[주소]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전화] 063-580-3964

[운영] 10:00~18:00(동절기~17:00), 월요일 휴무

### 여행작가 허준성은?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 저자 허준성은 10년째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누비며 여행을 하다가 제주도로 이주한 4년차 이주민 / 국내외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자 잡지 기고와 단행본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 저서로는 『프렌즈 제주』(2023), 『대한민국 드라이브 가이드』(2022), 『대한민국 자동차 캠핑 가이드』(2022) 등이 있다.